

“이웃도 내가족”...주민이 만든 ‘서삼사랑무료택시’

장성 서삼사회보장협, 고령자 대상 편도에서 올해부터 왕복운행 변경 입산부·영유아 가정까지 지원 확대

주민들이 뜻을 모아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택시'를 운영하는 지역이 있다. 장성 서삼면이다. 지자체가 농촌지역의 교통복지를 위해 운영하는 '100원 택시', '1000원 택시'가 아닌 완전 공짜 택시이다.

특히 마을 이장단과 청년회, 전직 공무원 등 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 모금해 조성한 기금으로 운영해 가치를 더하고 있다.

3일 장성군에 따르면 이웃을 내 가족처럼 돌보자는 취지에서 서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해부터 무료 마을택시를 운영 중이다. 올해는 서비스 대상을 입산부와 영유아 가정으로 확대했다.

마을 주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이 택시는 '서삼사랑택시'로 불린다.

서삼사랑택시의 운영 주체인 서삼지역사회보장

협의체는 사회단체와 자원봉사자 등 지역 복지 증진에 뜻을 같이한 11명의 회원으로 구성됐다.

무료택시에 들어가는 비용은 서삼면이장협의회와 서삼면청년회, 서삼면 출신 공직자 등 주민들이 직접 나서 운영기금 기부 등 활동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고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했던 지난해는 10개리 주민 36명이 서삼사랑택시를 신청, 이용했다.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지면서 '서삼사랑택시'의 이용 대상을 올해부터는 입산부와 영유아가정으로 대폭 확대했다.

기준에 편도만 운영하던 노선도 올해부터는 왕복운행으로 변경했다.

서삼사랑택시는 무료택시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민·관 협력서비스 연계를 위한 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활동도 펼치면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서삼사랑택시를 운영하는 모범택시기사 김동연 씨는 “지역 주민을 도울 수 있어 뿌듯하다”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택시를 이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 2년째 운행 중인 '장성서삼사랑택시'. <장성군 제공>

용하고, 봉사에도 참여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서삼사랑택시는 주민 자체 사업으로 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지

자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여성친화도시 조성 강진군 대통령 표창



강진군은 지난 29일 여성가족부 주관 '2020년도 여성친화도시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자체를 말한다. 이번 포상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양성이 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모범적으로 기여한 우수 지자체에 수여됐다.

강진군은 일자리종합안내센터 운영, 강진군 대표 관광 프로그램인 푸소(FU-SO)체험, 마을공동체식 운영, 여성 주체 마을기업(안팎발레방)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전국 지자체의 본보기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받았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 포상 및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전국 23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식도 함께 진행됐다.

강진군은 지난 2016년에 이어 올해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여성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지원 ▲육아 등 종합지원 ▲여성친화공간 조성 ▲성평등 기반 강화 등 5대 전략 16개 과제를 추진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나주시, '광주~나주 광역철도망' 최종안 영산포 추가

영산포 1.8km 구간 포함 전남도에 제출 광주 상무역~혁신도시~나주역~평동역

나주시가 5대 선도 정책과제로 추진 중인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망 구축' 최종 노선안에 영산포 권역을 추가했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영산포 권역 1.8km 구간이 포함된 광역철도망 최종 노선안을 지난 1일 전남도에 제출했다.

나주시는 앞서 지난달 28일 '광주상무역~서광주~대촌~남평읍~나주혁신도시~나주역~동신대~노안역~평동역'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32.6km 노선안을 1차로 채택했다.

하지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최종 노선안을 영산포권역을 포함해 총길이 34.4km 구간으로 변경했다.

최종 노선안은 '광주상무역~서광주~농수산물유통단지~대촌~남평읍~나주혁신도시~나주역~영산포~동신대~노안역~평동역'을 오간다.

당초 노선안에는 1구간 중점과 2구간 시점이 나주역이었지만, 최종안 제출 과정에서 낙후된 영산포권역 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염원과 도심 균형 발전을 강조해온 강진구 시장의 의지를 반영해 2구간 시작점을 영산포로 확정했다.

전남도는 노선안 검토를 거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거쳐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할 광역철도 노선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나주와 광주를 잇는 광역철도망은 단일 생활문

화권 벨트화를 통해 인적·물적 자원교류를 도모하고 인구유출과 교통정체 해소, 관광산업 활성화 등 상생발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주시는 국토부, 전남도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학계·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망라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강진구 시장은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망 구축은 정부가 지향하는 지역균형발전과 광역경제권 기틀마련을 위해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호남 상생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이번 사업이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 가우도에 150m 진짜 출렁다리 생긴다

강진 관광명소인 가우도에 길이 150m의 진짜 출렁다리가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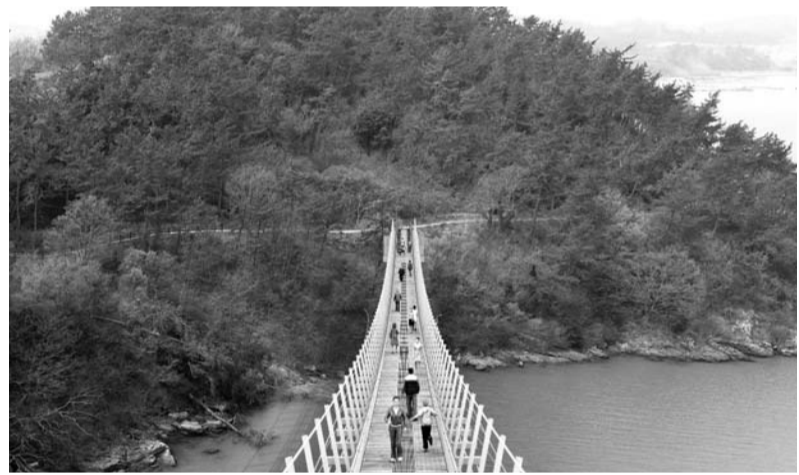
3일 강진군에 따르면 출렁이지도 않는 다리를 출렁다리라고 이름 지어 입산에 오른 가우도에 진짜 출렁다리를 건설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2013년 준공한 가우도 출렁다리는 강진의 핵심 관광지인 가우도를 대구면 저두리와 도암면 망호리를 연결한 연륙교다.

가우도 해안선을 따라 약 3km의 산책로와 함께 가우도 쥘트랙 등 즐길 거리가 많아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강진 대표 명소다.

그러나 가우도 출렁다리를 다녀온 관광객들은 이름과 다르게 실제로 출렁이지 않는다는 불만과 함께 명칭 변경 요구가 많았다.

이에 강진군은 관광객 요구를 반영해 가우도 내



강진 가우도에 건설하는 새로운 출렁다리 조감도(왼쪽)와 기존 가우도 출렁다리.

에 실제로 움직이는 출렁다리를 개통한다.

새로 선보일 출렁다리는 가우도 내에 길이 150m, 높이 15m로 조성된다.

주변 편의시설 정비 완료한 후 올 상반기 내에 개통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두 다리의 명칭이 중복되어 혼선이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래 가우도 출렁다리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고 설문조사를 10일까지 진행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여러 의견을 반영해 가우도



출렁다리 명칭 변경과 함께 진짜 움직이는 출렁다리를 완공하고 향후 가우도 내에 민자유치를 통한 숙박·레저 시설 확충을 통해 가우도를 서남해안 대표 레저형 관광단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출렁다리 명칭 변경과 함께 진짜 움직이는 출렁다리를 완공하고 향후 가우도 내에 민자유치를 통한 숙박·레저 시설 확충을 통해 가우도를 서남해안 대표 레저형 관광단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담양 친환경 쌀 219t 광주 학교급식 공급

담양군은 '대숲맑은' 담양 친환경 쌀 219t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광주지역 학교 급식으로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담양군농협쌀조공법인은 최근 광주시교육청의 학교 급식용 친환경 쌀 공급업체로 선정돼 광주지역 초·중고 312개 학교에 친환경 쌀을 공급하게 됐다.

'대숲맑은' 담양 친환경 쌀은 2011년부터 연간 600여t씩 서울시 학교 급식으로 공급되고 있다.

2016년부터는 광주지역에 학교 급식으로 공급되고 있다.

올해는 더욱 안전하고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 관내 8개 농협을 통합해 담양군농협쌀조공법인을 설립했다. 봉산면 신학리에는 120억원을 들여 통합 미국종합처리장(RPC)을 준공할 계획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전국 최초로 정원과 체질을 겸비하는 미국종합처리장(RPC) 조성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의 쌀 가공판매로 전국 최고 브랜드의 자부심을 이어가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